

지역 매아리

정읍시 보건소, 위해 해충 집중 방역

정읍시보건소가 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로 인해 해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절기 집중 방역에 돌입한다.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하수구 연막소독과 유충구제, 정읍 찬변 분무소독을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하절기 취약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야간방역을 위해 4개 방역기동반을 추가로 편성, 친환경 야간 연무소독을 실시한다.

하절기 집중 방역은 10월 2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인구밀집지역(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업지구 등)에 확산제를 이용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한다.

친환경 연무소독은 물과 확산제를 희석하여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정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막소독에 비해 연기가 적어 방역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야간 연무소독 차량에 홍보문구를 부착해 주민들에게 연무소독 중 임을 알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근로여건 개선 위한

그린환경시스템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15일 지역 내 뿌리 기업의 노후화된 생산현장과 근로여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뿌리 기업 그린환경시스템 평가위원회를 가졌다.

뿌리 기업은 주조와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로 나무의 뿌리처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시장에서 외면 받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근로자의 기피 공정을 철저히 분석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생산성,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뿌리 기업 그린환경시스템 지원사업이 그 일환이다.

사업내용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유해공정 작업환경의 개선과 생산현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 기반구축, 뿌리 기업 공동체로 해소 지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2개 업체 대상으로 작업장에서 발생 되는 분진·유해물질 제거시설과 3정5S 기반구축시설에 5천만원(도비 2천500만원, 시비 2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 열악한 뿌리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한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눈앞에!

정읍시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위원회서 7월 최종 결정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한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본보 5월 15일자 1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의 서원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권고 평가 결과 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등재 예정인 서원은 무성서원(정읍), 소수서원(영주), 도산서원(안동), 병산서원(안동), 필암서원(장성), 옥산서원(경주), 동동서원(달성), 남계서원(함양), 돈암서원(논산) 9개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신라말 최치원 선생이 태산 태수로 부임하여 8년동안 선정을 베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나자 주

민들이 사당을 세우고 태산사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이후 1668년 숙종 22년에 '무성'이라는 이름을 내리면서 무성서원이란 국가 공인 서원이 되었다.

향촌사회에서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자체적으로 설립한 무성서원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

구한말 면안 최익현과 문헌 임병찬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일제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호남의병을 창 의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라북도 유일의 서원이며, 1988년 국가사적 제166호로 지정됐다.

무성서원은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동

등하게 제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서원 내 건축물이 화려한 보다는 간결하고 우아하며, 모든 건축물의 높이가 통일한것은 평등함을 상징한다며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보더라도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평한다.

유진섭 시장은 "무성서원은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정읍의 다 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유산과 2019~20 정읍 방문의 해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총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명품 농특산물 중국시장 진출에 청신호

군·중국 태주시 우호교류 협약

고창군이 인구 500만명의 농업도시 중국 태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군은 중국을 방문중인 유기상 군수가 지난 15일 중국 강소성 중양에 위치한 태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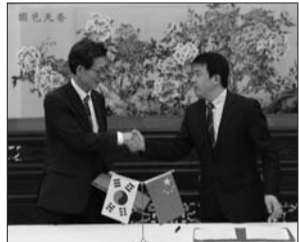
이날 체결식에는 태주시 사립군 시장을 비롯한 농업, 문화, 체육 관련 지도자가 참석했다. 사립군 태주시장 환영사, 유기상 고창군수 답사, 양 도시 교류협력사업 협의, 의향서 체결, 선물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의향서는 ▲우수 농특산물 연계홍

보·관측·수출시장 확대 ▲홈스테이·문화체험 등 청소년 교류 ▲습지의 관리·보존방안 정보교환 ▲관광 자원 연계 홍보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양 지역의 경제무역,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등 세부 우호교류 확대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중국 강소성 중부에 위치한 태주시는 인구 500만의 농업도시다. 주요 농산물은 면, 가축, 은행나무 등이다. 특히 여의도 면적 10배(26km)에 달하는 '진호국가습지공원', '이중수상산림공원' 등이 있어 중국 생태관광 명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주민 생활 환경이 흡사한 태주시와 교류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면서 "향후 고창군과 손잡고 강안도시로 발전시



켜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간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우호교류 도시인 산둥성 조주시를 차례로 방문해 우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우호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적극 추진

부안군,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 지원

부안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총 5대 규모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체와 사업장 주소가 부안군인 법인 및 기업 등이다.

특히 부안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판매점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안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부안사랑상품권' 7월 발행

부안군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사랑상품권을 오는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효증권으로 유효 10개월을 발행해 유통시점 계획이며 수요상황에 따라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청 직원과 소비자

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은 16일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캠페인을 실시하고 점포를 각각 방문하며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홍보활동과 더불어 가맹점 모집 현장접수를 실시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일 큰 바지락을 찾아라'

고창 바지락 축제, 내일 심원면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개최

전국 바지락의 40%를 생산해 내는 고창군이 바지락 축제를 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8~19일 고창군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고창 바지락 축제'를 연다. 고창 바지락은 5월 중순 보리가 노랗게 익을 때쯤 통통하게 살이 올라 가장 맛있다.

심원 하전어촌계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의 흥미를 끌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바지락 왕을 찾아라 는 소정의 참가비용을 받아 청정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제일 큰 조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순금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단, 15분간만 바지락을 시중 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바지락 특가세일'도 마련된다.

이밖에 '바지락 갈국수'를 비롯해 '피자', '해물탕면', '무침', '전', '비빔밥' 등 바지락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요리가 선보일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063-584-9900 www.gangsanwine.com